

□ 국가 개황

- 명칭: 카자흐스탄 공화국(Republic of Kazakhstan)
- 면적: 272만 km²
- 인구: 1,495만 명
- 인구 구성: 카자흐인(57.2%), 러시아인, 우크라이나인, 우즈베크인, 독일인, 타타르인, 위구르인 등(27.2%), 한민족(고려인)이 전체 인구의 0.7%를 차지함.
- 수도: 아스타나(Astana)
- 공용어: 카자흐어와 러시아어
- 종교: 국민의 47%가 이슬람 수니파이며 러시아정교가 44%를 차지함.
- 특징: 1991년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그 해 독립국가연합(CIS)에 가입함. 러시아와 중국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카스피해와 접경하고 있음. 수도인 아스타나를 포함하여 1997년 이전 수도인 알마티(Almaty)의 두 개의 행정구역 외 14개 주로 구성됨.

□ 카자흐스탄의 방송 환경

○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도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결과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,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시장 경제 체제의 유지와 카스피해 원유 개발 등의 원유, 가스 개발 산업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연 10%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.

○ 2001년 통계 결과, 카자흐스탄에는 991개의 신문사, 366개

의 잡지사, 125개의 전자미디어와 14개의 뉴스 기업이 존재함. 카자흐스탄 미디어의 80%는 정부 소유가 아니며, 전체 미디어의 30%가 전국 단위로 운영됨. 또한 카자흐스탄의 미디어는 카자흐어, 러시아어, 우즈베키스탄어, 우크라이나어, 폴란드어, 영어, 독일어,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됨.

○ 카자흐스탄의 국영 텔레비전 채널로는 Kazakhstan 1이 있으며, 이 외에 전국 단위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는 Khabar과 Yel Arna가 존재함. 이 중 Khabar는 현 카자흐스탄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의 딸인 Dariga Nazarbayev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은 찾기 힘든 실정임.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16개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존재.

○ 카자흐스탄에는 125개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이 존재. 대부분 러시아 TV 채널 수신이 가능함. 케이블(알마 TV)과 위성을 통해 각국의 주요 방송 시청 가능.

○ 고려인과 한국 교민을 위한 유일한 교민신문인 고려일보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간. 소수 민족을 위한 고려인 방송이 국영 방송을 통해 일주일에 30분 정도 방송되고 있으며, 아리랑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.

○ 카자흐스탄은 헌법 상에 언론의 자유와, 정보를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의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으며, 모든 종류의 검열은 금지되어 있음.

○ 카자흐스탄의 미디어 관련 대표적인 규제기관으로는 문화 정

보부(the Ministries of Culture and Information)이 있음.

□. CIS 지역의 국내 영상물 유통 현황 및 진출방안

○ CIS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내 영상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임.

○ 카자흐스탄의 경우 <가을동화>, <첫사랑>, <초대>, <올인> 등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,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카자흐스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임.

○ CIS 지역 한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9년 영화 <쉬리>와 드라마 <별은 내 가슴에> 방영을 계기로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함. 2003년 이후 국영 우즈벡TV가 삼성의 협찬으로 방영한 <겨울연가>는 네 차례의 재방송을 통해 60% 가량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 지역 한류를 이끌어왔음.

○ <별은 내 가슴에>는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, <겨울연가>는 우즈베크어로 더빙하여 방송. 이 외에 <가을동화>, <여름향기>, <이브의 모든 것> 등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음.

○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KBS가 CIS 지역 시장 개척에 가장 적극적임. KBS는 올해 <오!필승 봉순영>, <풀하우스>, <미안하다, 사랑한다>, <낭랑18세> 등을 우크라이나,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였음.

○ 또한 아리랑 TV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최대 유선방송사업자이자 이 지역 독점사업자인 블리아 케이블을 통해 24시간 방송을 시작하여 프로그램 진출에서 나아간 채널 진

출까지 이뤄냈음. 우크라이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방송하는 아시아 채널로는 아리랑 TV가 유일함.

○ CIS 지역은 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유럽 본토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으로의 진출이 필요함.

○ 한국 드라마의 보급으로 인해 불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 지역을 연계한 스타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. 스타 마케팅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국내 관심도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.

○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합동 로드쇼 등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.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기점으로 하여 다른 CIS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.

○ CIS 지역 중 국내 영상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 지역이므로,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바탕으로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국내 영상물 진출 전략 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.